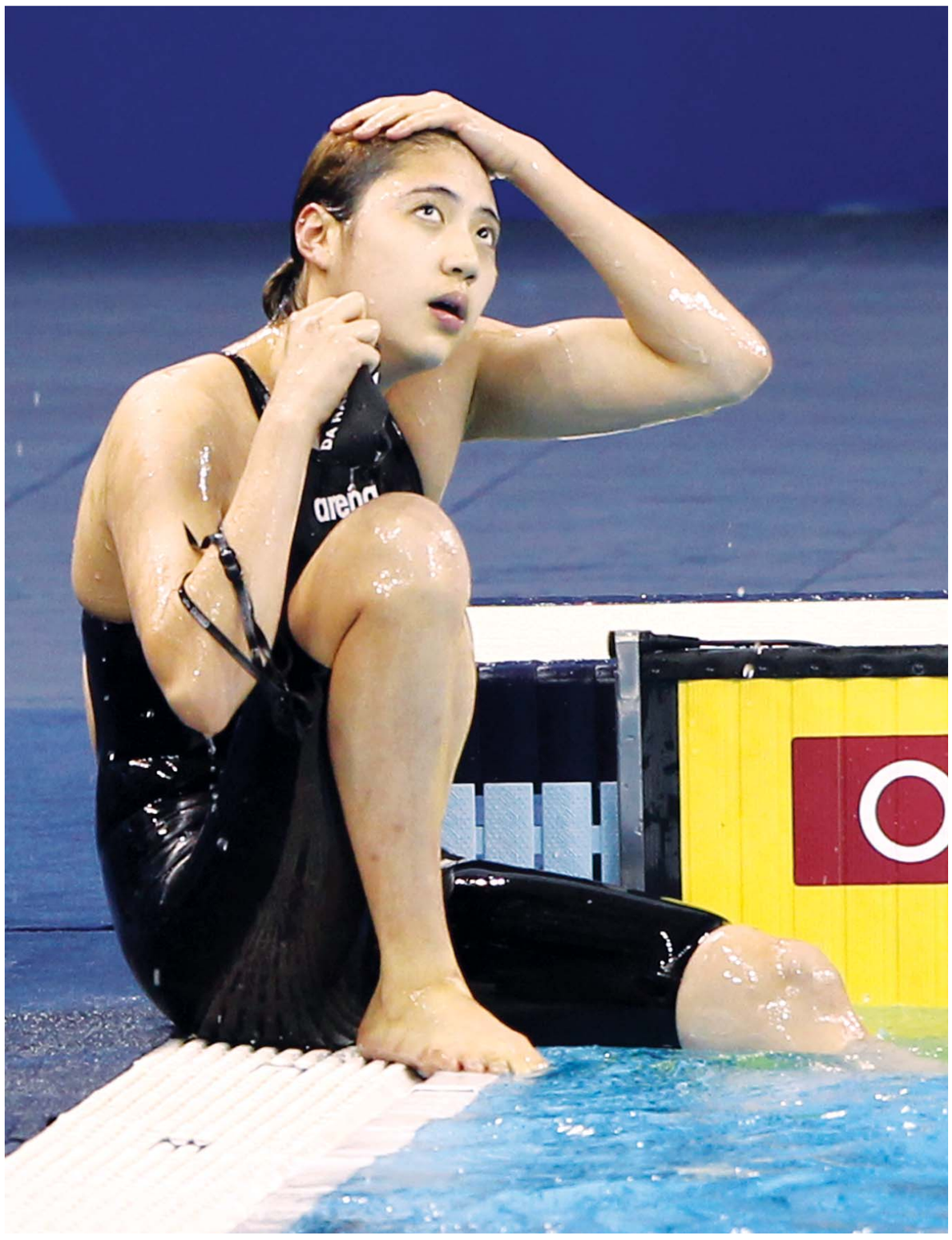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속상해요" 28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200m 예선에서 정다래가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보다 6경기 더 치른 KIA 후반 1위싸움 得될까 毒될까

3위 SK와는 12경기차 … 선수들도 엇갈린 전망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일요일 12승3패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선데이 타이거즈'라는 애칭을 얻었다. 장마가 지나간 뒤 KIA에게는 '선샤인 타이거즈'라는 또 다른 별명이 생겼다. 비를 피해가면서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27일 목동과 잠실 경기 그리고 사직 경기마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무등경기장에서만 야구가 열렸다.

다른 3개 구장에 비가 쏟아지면서 KIA 홀로 그라운드에 오른 경기는 올 들어 5번. 주중 비예보가 있었지만 28일에도 광주에는 햇볕이 나면서 KIA는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다 치렀다.

28일 경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KIA는 총 90경기를 소화했다.

비로 후반기 첫 3연전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두산과 넥센은 77경기를 치르는데 그치면서 최다경기와 최소경기팀의 차이는 13경기까지 벌어졌다.

KIA는 일단 승률 싸움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느긋한 모습이다. 하지만 10경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가장 계산이 복잡한 팀이 78경기를 치르는데 그친 SK다.

올 시즌 어려운 행보를 하고는 있지만 SK는 디펜딩 챔피언. 후반기 전력을 가다듬고 남은 경기에서 뒷심을 발휘한다면 1위 싸움 향방도 알 수 없다.

선수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단독경기가 치러진 27일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종범은 "경기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시즌 막바지가 되면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이 전력을 다해 경기를 하는 것에 반해, 순위와 상관없는 팀들은 주력선수들 빼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 만큼 1위 싸움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재응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일찍 경기를 해놔서 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주력 선수들 외의 전력으로 맞선 팀이 승리를 하기도 하는 게 야구다"고 여유를 보였다.

선수들의 의견은 달랐지만 결론은 '우리 경기만 알아서 잘하면 된다'였다. 다른 팀들의 경기와 상관없이 현재의 승률을 유지하면 선두권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는 얘기였다.

한편 KIA는 올 시즌 8경기를 우천으로 치르지 못했다. 두산과 가장 많은 5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됐고, SK와 2경기 그리고 한화와 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상현 100홈런·이범호 1000안타 시상

28일 삼성과의 경기에 앞서 KIA 외야수 김상현의 100홈런과 내야수 이범호의 1000안타 기록 달성 시상식이 열렸다.

KIA 김조호 단장은 이들에게 격려금과 상패 그리고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KBO 이상일 사무총장도 기념 배트와 축하 꽃다발을 수여했다.

김상현은 지난 10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프로통산 55번째로 100홈런을 쏘아올렸고 이범호는 지난 13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프로통산 62번째로 1000안타를 채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다래 "너무 못했어요" 눈물

평영 200m 예선 탈락

정다래(20·서울시청)가 눈물을 흘렸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깜짝 금메달을 따고 기뻐 눈물을 떨어뜨렸지만 8개월 뒤 상하이에서는 형편없는 기록에 속이 상해 울었다.

정다래는 28일 중국 상하이의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200m 예선에서 2분28초14로 5조 7위, 전체 38명 중 19위에 머물러 16명이 겨루는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2009년 동아시아대회 때 세운 개인 최고기록(2분24초9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정다래는 지난 4월 동아대회 이후 허리 통증으로 한 달 가량 정상적인 훈련을 못하는 등 이번 대회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설상가상으로 지난 25일 훈련 도중 오른 무릎을 다치고 말았다.

정다래는 "턴을 하고 나서 킥을 하려는데 발이 헛도는 느낌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치료하면 괜찮을 줄 았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다래는 "올해는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도 2분26초대 기록은 꾸준히 냈다"면서 "오늘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이다. 준결승에는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못했다"고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정다래는 "이번 대회가 런던으로 가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녀 대결' 샤라포바 승

웨스트 클래식, 한투코바 꺾어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5위·러시아)가 다니엘라 한투코바(21위·슬로바키아)와의 '미녀 간 대결'에서 이겼다.

샤라포바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총상금 72만1000달러) 단식 2회전에서 한투코바를 2-1(6-2 2-6 6-4)로 물리쳤다.

올해 윔블던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로 처음 투어 대회에 출전한 샤라포바는 1회전은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샤라포바는 2세트를 내준 뒤 3세트에서도 초반 게임스코어 0-2로 끌려가 위기를 맞았지만 역전에 성공했다.

188㎝의 샤라포바와 181㎝의 한투코바는 투어를 대표하는 '미녀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34〉 1997 외환위기와 해태의 쇠락

선동열·조계현·이종범 등 줄줄이 떠나

1997년은 연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와 맥을 같이 한 지각 변동이 프로야구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보·기아·쌍방울 등의 부도 여파가 해태에게도 미쳐 위험하다는 설이 프로야구계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가운데 해태 타이거즈는 선수를 팔아 연명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쌍방울이 주포 박경완을 현대에 현금 9억 원에 내다 판 것과 해태가 팀의 간판스타이자 팀의 정신을 상징하고 팀에 108승을 안겨준 조계현을 삼성에 현금 4억 원에 내다 판 것은 모기업이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였다.

그리고 해태가 1997시즌 종료 후 선동열에 이어 이종범까지 일본 주니치에 저항 없이 내준 것도 그 이면에는 현금 확보에 목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1998시즌 종료 후 '샛별' 임창용에 대한 삼성에 현금 묶인 팔아넘기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해태의 운명은 쇠락을 예고했다.

모기업이 그런 와중에 있었으니 지역의 간판 스타였던 서재응에 이어 김병현 그리고 다음해는 최희섭 등을 줄줄이 미국에 빼앗기는 아픔을 맛보았고 팬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던 해도 1997년이다.

그 선수들이 처음부터 메이저 리그를 목표로 했던 경우라기보다는 지명권을 가진 구단이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지 않고 심정적인 동정에만 기대했다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서재응·김병현·최희섭 등 모두 해태의 지명을 받고 입단을 전제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기록실에 앉아 함께 뛸 선배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해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기로 인해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거가 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고 훗날 금의환향해 환대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을 지명한 구단이 재정 상태가 넉넉한 타구단이었다면 그들 모두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1997년 6월18일 대구에서 열린 해태와 삼성의 혈투는 많은 걸 시사해주었다.

이날 해태는 이종범(2개)·김창희·장성호·이호성이 5개의 홈런을 때렸고, 삼성은 양준혁(2개)·김한수·류중일·신동주·최익성이 6개의 홈런을 만들었다. 이날 두 팀은 11개의 경기최다홈런 신기록을 작성하며 연장 10회 13-13의 시간제한 무승부경기를 펼쳤다.

1997시즌 '야구 천재' 이종범이 5월18일부터 시작한 지금도 깨지지 않은 연속 도루성공 29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시즌 종료 후 선동열이 미리 가 있던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했다.

타이거즈 팬들의 희망이었던 이종범은 5시즌 동안 평균타율 0.332, 홈런 106개, 도루 310개의 기록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갔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
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호남유일의 합격전문반 개설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
7월 23일 첫진도 개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천명 대폭증원
사회복지직 특별반 모집 개강 8월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